

한국타이어, 중국에 제3공장 건설 추진

한국타이어(대표 서승화)가 중국에 제3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한국타이어는 7월7일 조희공시 답변을 통해 “중국에 제3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”며 “Chongqing과 Wuhan 등 내륙지역을 후보지로 물색하고 있다”고 발표했다.

<화학저널 2010/07/07>